논어 8편 태백 10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好勇疾貧，亂也。人而不仁，疾之已甚，亂也。」

독음 · 자왈 호용질빈 란야 인이불인 질지이심 란야

쉬운 풀이(요약) · 용기를 좋아하면서 가난을 미워하면 난을 일으키기 쉽다. 어질지 못한 사람을 지나치게 몰아붙여도 난이 생긴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好 좋을 호 / 勇 날랠 용 용

疾 병 질 질 / 貧 가난할 빈 빈 / 亂 어지러울 란 란 / 也 어조사 야

人 사람 인 / 而 말이을 이 / 不 아닐 불 / 仁 어질 인 인

之 갈 지 / 已 이미 이 이 / 甚 심할 심 심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